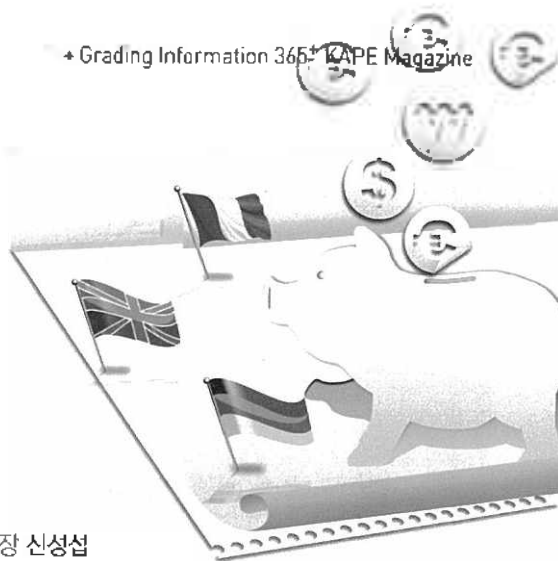


돼지고기이력제 선진국 사례조사

영국, 프랑스, 독일 실시 사례 중심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과장 신성섭

국내 양돈 산업은 2010년 구제역 발생, FTA 축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산 축산물의 고급화 및 안전 축산물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 「돼지고기이력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진국 사례조사는 국내보다 먼저 시행 중인 유럽의 소 및 돼지이력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전체 일정은 2013년 4월 11일부터 7박 9일간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의 돼지 사육부터 유통의 전 단계를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바쁜 일정이었지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특별호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영국·프랑스·독일의 돼지고기이력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돼지고기이력제의 추진체계(제도, 조직 등) 조사

유럽 국가는 EU식품관련법178조(178/2002)를 기초로 소 및 돼지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를 주관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농림부이며 자료를 관리하는 중앙관리시스템(CDB)을 보유하고 있다. 돼지이력제의 유럽국가별 관리체계는 EU 식품관련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모두 유사하다. 주관기관, 지도·감독기관, 이력관리시스템, 농가의무사항, 개체 및 농장식별번호, 이동증명서 등의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체계는 비슷하다.



프랑스 축산연구소 방문사진

| 국가/CDB | 관리체계 |
|---------------------|---|
| 영국 AML2(eAML2) | 농가에서 eAML2에 이동신고 입력 → 돼지 출하 → 농장 또는 도축장에 도착 → (이동증명서)도착확인+농림부의 AML2에 자동업데이트 |
| 프랑스 BDNI(BDPORC) | 농가에서 BDPORC에 이동신고 입력 → 돼지 출하 → 농장 또는 도축장에 도착 → 이동증명서 확인+농림부의 BDNI에 자동업데이트 |
| 독일 HIT | 농가에서 HIT에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입력 → 돼지 출하 → 농장 또는 도축장에 도착 → 이동증명서류 확인 후 도축신청 |

농장식별번호 구성 체계 및 종돈관리 사항 조사

유럽 선진국은 지리기반의 농장식별번호로 돼지이력제를 시행하며 비육돈의 경우 농장식별번호 표시, 종돈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다. 식별방법에는 귀표(Ear tag), 귀 문신(Ear tattoo), 문신(Slapmark) 등이 있다.



귀표(Ear tag)



귀 문신(Ear tattoo)



문신(Slap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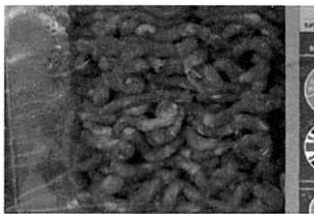


일시적 표시(Temporary paint mark)

모든 자료입력 주체는 돼지 소유주(농가)이며 귀표 구입비 및 농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국가별 지도·감독 기관은 양돈협회 또는 위탁기관 및 지역 관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도·감독 기관은 농가를 위한 행정업무 대행 또는 위생·방역, 사육농가 점검 등의 역할을 한다.

비육돈의 도축장 출하나 다른 농장으로 이동 할 경우 농가에서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국가별로 표시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돼지에 문신을 주로 찍는다. 자돈의 이동 시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페인트 등을 일시적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농장식별번호는 123456의 여섯 자리지만 영국은 UK AB1234, 프랑스는 FR 35ABC, 독일은 문자(2~3)+사육지번호(4) 등으로 농장식별번호가 구성되어 있다.

질병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이력시스템 개선사례 조사



영국의 Trace code



프랑스의 이력표시 라벨

유럽에서의 이력번호 라벨표시는 'EU 라벨법'에 근거하여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가공단계부터 육음번호(Batch code)가 연계되어 유통단계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등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일농장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육음번호를 사용한다. 영국에서는 이력코드(Trace code)에 원산지, 도축장, 가공장 등을 표기해 유통단계까지 연계가 가능하지만 소비자 조회는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 단일농장 제품으로 이력내용을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제품들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형유통마트에서나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정육점 또는 전통시장에서는

대부분이 라벨표시조차 없었다. 국내에서 시행될 돼지고기이력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개체 또는 묶음번호로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이는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가능일 것이다.

국내 돼지고기이력제가 나아갈 방향



현재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도축 출하 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해 제한적인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의 모든 축산 농가는 지리적 중심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을 것이고 돼지의 경우 완벽한 이력관리 프로세스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모두 표시하여 출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질병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돈의 경우 개체식별이 가능해야 수급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체별 관리가 필요하며, 국내 종돈현황은 표준 이각에 따른 개체별 표시를 하고 있으나, 숫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귀표, 귀 문신 또는 이각을 공용으로 쓰는 방법 등의 개체별 관리가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량, 서류, 현장점검과 돼지고기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한 불성실 신고를 하는 고위험군 농가 추출 등으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이력제는 DNA동일성검사 모니터링으로 제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했지만 돼지고기이력제의 경우 돼지가격에 비해 시료의 채취, 보관, 분석에 많은 비용이 예상되며 개체수가 많아 DNA 찬자감별 또는 기타 방법(번식용 씨돼지 정액 DNA DB 구축) 등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근영**